

#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 '눈덩이'

## 시·군 재정 값아먹어도 그대로 방치 장학수 도의원, 조속한 대책 강력 촉구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국민의당, 정읍1·사진)은 17일 열린 전라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강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이를 반드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 2차례의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시대의 부작용으로 인해 지자체장들의 불필요한 선심성, 치적성 신규 건축사업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도 및 14개 시군의 공

공건축물의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를 DB로 구축'하고 '전라북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심도 있는 재정투자심사를 실시, 열악한 시군의 재정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시군의 재정여건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장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와 검



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장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전라북도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물 현황 파악 및 활용 조례를 제정, 도 재정투자심사 강화방안을 조례로 규정하려했으나 이마저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항을 이유로 도지사가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이어서 조례제정은 도지사의 권한 침해라며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송하진 지사가 180만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을 넘어,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도가 해야 할 의무와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며,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재정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도 및 시군의 공공건축물의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DB 구축'과 '전라북도 공공투자관리센터 개설'을 하루빨리 진행하고, 이 내용을 전라북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공공건축물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 서식'과 심사절차 매뉴얼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강화를 통해 전라북도의 공공건축물 신속역지 및 유지관리비 절감방안 마련 등 재정건전성을 향상 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진성 기자

# "학교 안 공기가 위험하다"

## 최영규 도의원, 도내 학교 등 실내 공기질 확보 촉구

도내 학교와 어린이집 등의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설치 확대·관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규(익산4·사진) 의원은 제34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메르스, 신종플루 등 위험도가 높은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년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실내 공기가 좋지 않을 경우 전염병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아토피나 호흡기질환 등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며, "취학 전 영유아는 신체 등의 성장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외부적인 자극에 저항력이 취약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영유아들이 최초로 공동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보건환경 여건은 대부분 소규모로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오염 방지 전문관리자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나마 도교육청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영유아가 다니는 도내 전체 유치원 519곳 중 221곳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다"면서 설치되지 않은 곳까지 설치하라고 전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은 하루의 대부분을 창문을 닫고 일상을 보내고 출입하는 인원도 적어 환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밀폐된 실내일수록 중요한 것은 환기임에도 냉·난방 사용 시 창문을 열고 환기하게 될 경우, 에너지가 소비되기에 환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어서다.

이에 최영규 의원은 쾌적한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각급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공기정화장치를 주기적으로 청소 실시해야 한다"면서 "또한, 공기정화장치의 성능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장소의 면적에 따라 적정 용량의 공기정화장치가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유를 "공기정화장치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설치를 검토하되 오염물질 제거 효율, 설치장소 특성,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가자! 화이팅!"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빙상경기훈련관을 방문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훈련 중인 쇼트트랙 선수들을 격려 후 선물 받은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헬멧을 쓰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환경분야 관계자 2000명 전북 찾는다

## 도 보건환경 연구원, 25일부터 이틀간 대규모 행사 유치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5일~26일(2일) 2018년 전국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연합회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합회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 시스템의 국제기준(ISO 17025)에 적합한 분야별 분석 숙련도와 시험·

검사 기관 현장평가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행사로 전국 검사기관 관계자 약 2,000여명이 전라북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실시하는 국·내외 숙련도평가에서 항상 우수 적합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7년 환경부장관 최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중앙에서 추

진하는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게 된 것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연합회에 참석하는 전국 환경실업실 관계자에게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녹색 수변도시! 새만금사업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전북 자존감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가축전염병 매년 반복... 정부지원 확대해야"

## 이도영 도의원, 예방책 촉구 국가정 종합대책 수립 요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도영 의원(전주2, 국민의당·사진)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17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농가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구제역 A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가뜰



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 전액 국비로 지급할 것을 건의했다.

이도영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농가들이 이종고를 겪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식량주권 확보와 농민보호의 차원에서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